

“신선하지도 올바르지도”... ‘길복순’

변성현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 주연 넷플릭스 영화 전도연의 얼굴에 킬러의 냉혹·엄마의 당혹 함께 담아



변성현 감독은 배우 설경구를 되살렸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이하 ‘불한당’) 이전 설경구의 필도그래피는 지지부진했다. ‘나의 독재자’ ‘서부전선’ ‘루시드 드림’의 관객수는 각 38만명, 60만명, 10만명. 흥행 실패만큼 좋지 않았던 건 그가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설경구의 연기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마치 옛날 배우가 된 것 같았다. 그랬던 그가 변 감독의 ‘불한당’을 만나 다시 태어났다. 이 작품에서 몸에 딱 맞는 슈트를 입고 멋진 표정을 짓는 설경구는 예전에 그 연기 잘하는 아저씨가 아니라 딸 그대로 스타 배우가 돼 있었다. 말하자면 변 감독은 그에게 10년은 더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를 선사했다.

이쯤되면 변 감독을 이른바 ‘배우 재발굴 전문가’로 불려도 될 것 같다. 변 감독은 이번엔 전도연에게 생기를 줬다. ‘너는 내 운명’ ‘밀양’ ‘하녀’로 이어지는 2000년대 필도그래피가 전도연 연기 경력의 정점이었다면, ‘무뢰한’을 빼면 인상적인 작품이 없었던 2010년대는 꽤나 긴 침체기였다. 설경구와 마찬가지로 전도연의 연기력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만, 한국영화계에서 40대 여성 배우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극히 한정돼 있었다. 변 감독은 그런 전도연을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넷플릭스 영화

‘길복순’에서 보여준다. ‘길복순’은 전도연의 얼굴에 킬러의 냉혹과 엄마의 당혹을 함께 담아내며, 그간 이 뛰어난 배우를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던 다른 영화들을 핀잔하는 것 같다.

되도록이면 전도연을 무겁게 담아내려고 골몰했던 앞선 영화들과 달리 ‘길복순’은 전도연을 최대한 가볍게 소비한다. 전설로 불리는 최고의 킬러이지만 은퇴를 고민 중이라는 설정은 익숙하고, 은퇴 이유가 홀로 키우는 딸 때문이라는 건 상투적이다. 청부살인을 업으로 하는 이들을 모아놓은 회사가 있으며 그들이 하는 일을 서로 작품이라고 부르는 건 어차피 유치하다. 변 감독이 깔아놓은 이 뻔한 판, 그러니까 뭘 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킬링타임용 영화에서 전도연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된 듯하다.

전도연이 많은 장면에서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직접 해내는 걸 보고 있으면 배우의 연기라는 건 결국 몸 전체를 사용해야만 하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극도로 섬세한 특유의 감정 표현은 명불허전이다. 액션 스타가 된 ‘브렌드 뉴’ 전도연은 경쾌하고 발랄하며, 액션물에서도 캐릭터의 인간미를 드러내 보이는 ‘빈티지’ 전도연은 클래식하다.

다만 ‘길복순’은 전도연에게 새로울지 몰

라도 관객에게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해 이 작품은 배우 전도연이라는 특정 프레임으로 볼 때 신선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도연을 포함한 영화 전체를 보면 꽤나 시들하다. 가장 큰 문제는 ‘길복순’만의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우선 이 영화는 큰 틀에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킬 빌’ 시리즈와 채드 스탠셀스키 감독의 ‘존 워’ 시리즈에 빚을 지고 있다. 킬러 회사라는 설정은 한국영화 ‘회사원’을 떠올리게 하고, 일부 시퀀스는 타란티노 감독의 다른 영화들 또는 ‘킹스맨’ 시리즈의 일부 장면에서 가져온 듯한 인상을 준다. 그렇다보니 ‘길복순’은 영화를 1년에 한 두 편 보는 관객에게 새로울 수 있어도 굵직한 액션 영화를 꾸준히 따라온 관객에게는 새삼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변 감독의 이 시도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타란티노 감독이 ‘킬 빌’ 시리즈를 만들 때 그가 좋아했던 일본 사무라이·야쿠자 영화, 홍콩 무술영화, 할리우드 B급 액션·호러 영화를 노골적으로 차용하고 오마주하며 완성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킬 빌’이 수집하고 섞고 흔들며 그 작품만의 독창적인 스토리·캐릭터·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길복순’은 ‘길복순’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영화를 흉내내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달 31일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영화 부문에서 시청 시간 3위에 올랐다는 것 자체로 이 작품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변 감독이 현재 차세대 한국 영화감독 중 멋진 그림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연출가라는 점에서 볼 땐 아쉬움을 느낄 시청자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이라는 관점에서 ‘길복순’은 곁길기에 그친다. 남성들의 세계에서 군림하는 여성 킬러(길복순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프로 청부살인업자 중 유일한 여성이다)라는 점, 이 킬러가 싱글맘이라는 점, 어린 시절 남성에게 학대받았다는 점, 킬러의 딸을 동성애자로 설정한 점을 보면 ‘길복순’이 PC에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변 감독의 전작 두 편에서 철저히 남성들의 세계를 그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여성 길복순의 모성에 집착함으로써 여성 서사는 고사하고 오히려 PC에 반하는 영화가 되고 만다. 이런 점에서 ‘길복순’은 PC를 하나의 트렌드 정도로 인식하고 도식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뉴진스, CM송도 음원차트 상위권에...‘제로’ 인기몰이

코카-콜라 콜라베이션곡...멜론차트 4위 찍기도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CM송마저 국내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려놓았다. 5일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 따르면, 뉴진스의 코카-콜라 콜라베이션곡 ‘제로(Zero)’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멜론 ‘톱 100’ 차트에서 7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오전 8시엔 4위까지 찍었다.

지난 3일 오후 6시 공개된 이 노래는 발매된 지 2시간 만에 각 차트 ‘톱 10’에 진입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탔다. 특히 지니와 네이버 바이브에서는 한때 정상을 밟았으며, 벅스에서도 3위까지 치솟아 ‘음원 강자’ 뉴진스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디토(Ditto)’ ‘OMG’ ‘하이프 보이(Hype boy)’로 올해 1분기 멜론 월간 차트 1~3위를



힙플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의 신곡 이긴하지만 CM송이 이처럼 호성적을 거둔 건 이례적이다.

봉준호·설경구·김현주 손편지...강수연 추모집 출간



출연작 스틸사진, 미공개 사진 등 담겨

배우 강수연을 추모하는 책이 이달 말 나온다. 강수연추모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5일 이렇게 밝히며 “추모집 제목은 ‘강수연’으로 정했다”고 했다. 추진위는 “강수연이라는 이름이 수식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크고 독보적이며, 배우의 타고난 성정도 꾸밈없고 간결하고 지나친 수사나 장식을 좋아하지 않았기에 배우 강수연 1주기 공식 추모집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추모집 ‘강수연’에는 한국영화와 함께한 고인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출연작 스틸 사진과 촬영 현장 미공개 사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수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동료 영화인의 글도 함께 실린다. 봉준호 감독과 배우 설경구·김현주가 강수연에

게 쓴 손편지가 담기고, 강수연과 함께 작업한 영화인들의 코멘트도 실리게 된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이 강수연 배우론을, 소설가 정세랑은 어린 시절 강수연을 동경했던 팬으로써 에세이를 쓴다. 강수연 추모집 ‘강수연, 영화롭게 오랫동안’은 다음 달 6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같은 달 7~9일엔 메가박스 성수에서 열린다. 영상자료원에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5) ‘치녀들의 저녁식사’(1998) ‘달빛 길어올리기’(2010) 3편을 상영하고, 메가박스 성수에선 ‘씨받이’(1986)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1987) ‘아제아제 바라아제’(1989) ‘경마장 가는 길’(1991) ‘그대 안의 블루’(1992) ‘송아’(1999) ‘주리’(2013) ‘정어’(2023)를 선보인다.

투바투·트와이스, ‘빌보드 200’ 차트인 계속

9주·3주 연속...엔믹스, 122위로 차트 첫 진입



122위를 차지했다. 엔믹스는 해당 차트 첫 진입이다. 이번 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선 지민이 ‘라이크 크레이지로’ 1위를 차지한 것 외에 K팝 팀 중에선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들었다. 지난 2월24일 발매한 첫 번째 싱글 ‘더 비기닝: 큐피드(The Beginning: Cupid)’의 타이틀곡 ‘큐피드(Cupid)’가 ‘핫 100’에서 94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100위로 해당 차트 처음 진입했고 이번 주에 6계단이나 역주행하면서 ‘반짝 인기’가 아님을 증명했다.

전통적인 방식의 방송 점수 등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리밍과 음원 판매량을 토대로 순위를 정하는 ‘글로벌 200’에선 지민 외에 K팝 걸그룹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월 발매한 싱글 ‘OMG’의 타이틀곡 ‘OMG’는 28위다. ‘OMG’의 선공개곡 ‘디토’는 49위다. 데뷔곡 중 하나인 ‘하이프 보이’는 136위다.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는 지난 주 보다 26계단 뛰어 올라 39위를 차지했다.

트와이스 ‘레디 투 비’의 타이틀곡 ‘셋 미 프리’는 155위다. 미국 래퍼 겸 프로듀서 제이콜이 피쳐링한 제이홉의 ‘온 더 스트리트’는 121위다.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타이틀곡 ‘셔 다운’이 198위로 재진입했다.

한편 미국 컨트리 스타 모건 월렌의 새 앨범 ‘원 싱 앳 어 타임(One Thing At A Time)’이 4주 연속 ‘빌보드 200’ 정상을 차지했다. 미국 팝스타 마이일리 사이러스(Miley Cyrus)의 ‘플라워스(Flowers)’가 이번 주 ‘글로벌 200’에서도 정상을 올렸다. 해당 차트 총 10주간 1위다.

‘순천향 벚꽃 KBS 열린음악회’ 개최

오는 12일 순천향대 대운동장 특설무대

순천향대는 충남도민과 함께하는 ‘순천향 벚꽃 KBS 열린음악회’를 오는 12일 순천향대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건학 45주년을 기념하고, 충남도민에게 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순천향대에서 열리는 음악회는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즐길 수 있다. 지역민 7000여명을 초청해 12일 오후 7시부터 녹화한다.

김태홍 충남도지사, 박경규 아산시장,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 순천향대 김승우 총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이현주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 음악회에는 김연자, 노라조, 라포엠, 정동하, 몽니, 김재환, 체리블렛, 루시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김승우 총장은 “벚꽃이 만개한 4월의 봄날, 대한민국 대표 벚꽃 명소인 순천향대 캠퍼스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열게 돼 기쁘다”며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순천향대 캠퍼스에서 지역민 모두 하나 되어 꽃향기 가득한 4월의 밤을 즐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순천향 벚꽃 KBS 열린음악회’ 초대권은 충남도청 민원실, 아산시청 민원실, 아산시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한은행 천안, 아산 각 지점 등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오후 6시부터 초대권 소지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www.sch.ac.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슈가·아이유, 두 번째 협업...‘사람 Pt.2’



개 곡 ‘사람 Pt.2’에 아이유가 피쳐링으로 참여한 것이다. 2020년엔 슈가가 아이유의 곡 ‘에잇’을 공동작사·작곡하고 피쳐링했다. 당시 ‘에잇’은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이번 ‘사람 Pt.2’는 슈가가 2020년 5월 공개한 어거스트의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 수록곡 ‘사람’의 연작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로 인한 감정들을 어거스트 디식의 감성으로 풀어냈다. 뽀빠리 리듬을 중심으로 슈가의 랩과 아이유의 청아한 음색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 Pt.2’는 오는 7일 오후 1시 음원사이트에 공개된다. 이 곡이 실리는 ‘디-데이’는 21일 발매된다.

동갑내기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0·민윤기)와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30·이지은)이 두 번째 협업한다. 5일 슈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슈가가 또 다른 자이언트 어거스트 디(Agust D)로 발표하는 솔로 앨범 ‘디-데이(D-DAY)’의 선공